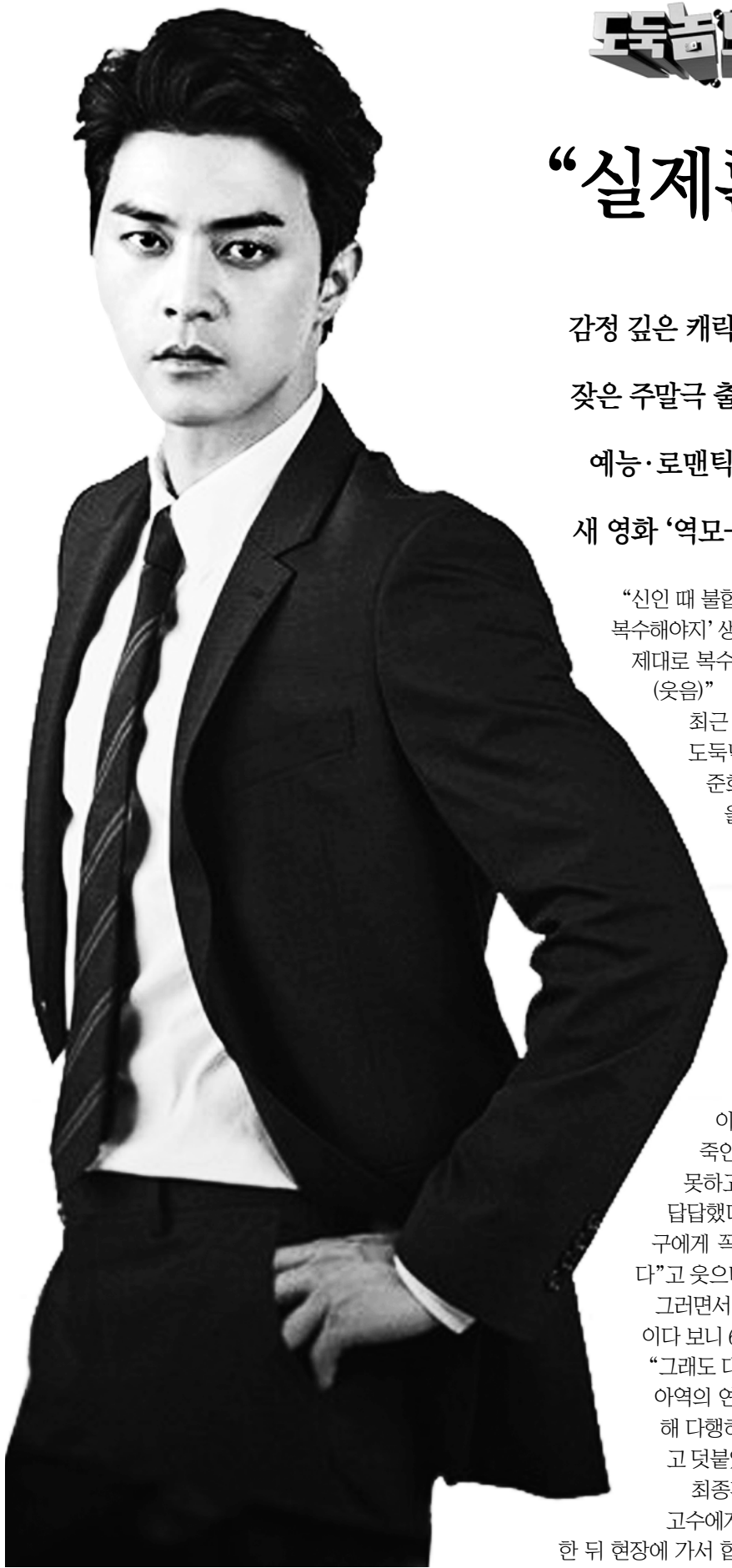




도독님 김지훈

“실제로 복수하는 성격 못 돼요”

감정 깊은 캐릭터...촬영 더 길게 느껴져

짙은 주말극 출연 ‘올드’한 이미지 고민

예능·로맨틱코미디도 해보고 싶어

새 영화 ‘역모-반란의 시대’ 23일 개봉

“신인 때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서 ‘나중에 떠서 복수해야지’ 생각해본 적은 있지만, 아직 못했죠. 제대로 복수하려면 지금보다 많이 해야 해요. (웃음)”

최근 종영한 MBC TV 주말극 ‘도독님 도독님’에서 ‘홍수자’ 엘리트 검사 한 준희를 연기한 배우 김지훈(36)은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실제로 시원한 복수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재치있게 답했다.

극에서 준희는 냉철한 이성 과 전략을 토대로 평생의 원수 윤중태(최종환 분)를 쥐락펴락하며 결국 복수에 성공했다.

김지훈은 “드라마가 총 50부작이었는데 40회가 넘도록 엄마까지 죽인 윤중태에게 시원하게 복수하지 못하고 ‘아직은 참아야 한다’는 바람에 답답했다”면서도 “전 실제로 평소애 ‘누구에게 꼭 복수해야지’ 이런 성격은 못 된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준희가 감정이 너무 깊은 캐릭터이다 보니 6개월 촬영이 더 길게 느껴졌다”며 “그래도 대본에 의지하고, 모자랄 때는 준희 아역의 연기를 보면서 감정을 살리려 노력해 다행히 대부분 장면이 잘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종환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절정의 고수에게 지지 않으려 무술을 열심히 준비한 뒤 현장에 가서 합을 맞췄을 때 느껴지는 짜릿함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소주(서현)나 화영(임주은)과의 로맨스는 없이 돌목(지현우)과의 ‘브로맨스’가 부각된 데 대해서는 “준희의 삶이 워낙 각박했기에 마지막까지 건조한 게 어울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02년 KBS 2TV 드라마 ‘러빙 유’로 데뷔한 김지훈은 ‘토지’(2004), ‘위대한 유산’(2006), ‘머느리 전성시대’(2007), ‘연애결혼’(2008), ‘천추태후’(2009), ‘별을 따다 줘’(2010), ‘결혼의 여신’(2013), ‘왔다! 장보리’(2014), ‘우리 집에 사는 남자’(2016) 등 다수 드라마에 출연했다.

주말극에 자주 출연하다 보니 아무래도 중장년층에 더 친숙한데, 김지훈은 그런 점이 배우로서 가장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데뷔한 지 16년 차인데, 제 ‘올드’한 이미지를 좀 바꿔보고 싶어요. 제게는 여러 모습이 있는데 한 부분을 전체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MBC TV 예능 ‘라디오 스타’나 JTBC 예능 ‘크라임씬’ 등에도 나갔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앞으로는 로맨틱코미디도 해보고 싶어요.”

김지훈은 오는 23일 개봉하는 영화 ‘역모-반란의 시대’에 주인공 이인좌 역으로 출연하며,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한편 6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2분부터 2회 연속 방송한 MBC TV 주말극 ‘도독님 도독님’의 시청률은 49회 9.9%, 마지막회 13.4%를 기록했다.

최종화에서는 친일파 후손으로 검사가 돼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윤중태(최종환 분)는 사형수가 되고, 독립운동가 후손인 장돌목(지현우) 등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게 됐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도독님’이 될 수밖에 없고, 친일파의 후손은 오히려 ‘도독님’이 돼 땀땀거리며 사는 현실을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드라마는 과거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이외의 한 세기가 지난 현재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며, 결국 ‘도독님’이 직접 ‘도독님’을 벌하는 구조를 극적으로 답했다.

‘도독님 도독님’의 후속으로는 배우 장혁, 박세영 주연의 ‘돈꽃’을 방송한다.

/연합뉴스



‘택시운전사’ 美 AWWF 3관왕 ‘쾌거’
〈아시아월드필름페스티벌〉

최우수작품상·인도주의상…송강호는 ‘특별언급상’

올해 한국영화 최대 흥행작인 ‘택시운전사’가 아시아월드필름페스티벌(AWWF)에서 최우수작품상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했다.

6일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택시운전사’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폐막한 제3회 아시아월드필름페스티벌에서 최우수작품상과 ‘인도주의상’(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을 수상했다.

주연 배우 송강호는 ‘다이내믹하고 강렬한 연기’라는 평가와 함께 특별언급상을 받았다.

아시아월드필름페스티벌은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열리기 전 아시아 영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영화제다.

‘택시운전사’는 아카데미 출품작 13편과 경쟁해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 영화는 내년 3월 시상식이 열리는 제90회 아카데미 영화상 외국어영화 부문에 한국영화 대표작으로 출품돼 있다.

/연합뉴스

안재욱·성유리 ‘희망TV SBS’ MC 나서

17~18일 방영 예정

배우 안재욱과 성유리가 SBS TV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TV SBS’의 MC로 나선다.

특히 성유리에게는 지난 5월 프로 골퍼 안성현과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 뒤 방송에 복귀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SBS는 “1997년 ‘기아체협 24시간’으로 시작한 ‘희망TV SBS’의 올해 MC로 안재욱과 성유리가 나선다”며 “프로그램은 17일과 18일 양일간 방송할 예정”이라고 6일 소개했다.

‘희망TV SBS’는 올해 20주년 방송을 맞아 예능 요소가 담긴 새로운 콘텐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굶주림에 고통받는 아동들의 실생활을 몸소 경험해보는 ‘끼니 전쟁 48시간’, 스타들이 스무 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스무 살의 희망, 너여서! 고마워’ 등이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성유리



안재욱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마이 리틀 베이비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1대 100 (재)	50 20세기 소년소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역사저널 그날 (재) 50 UHD 한식	50 생생정보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뉴스특보 트럼프 대통령 방한 50 팔도밤상 스페셜(재)		0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독톡 보원실계 (재)
1	00 KBS네트워킹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월요기획 〈루터, 시민정신에 날개를 달다〉	00 특선다큐 조애나 럼리의 일본기행	00 헬로키키 동물교실(재) 55 수빈 스토리 2	55 닥터 365
2	40 한국인의 밤상(재)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25 사이닝스타 55 경제매거진 M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30 행복한 지도(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재)	45 하하랜드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40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00 점속! 무비월드(재) 30 SBS 오뉴스
5	3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드래곤에그 30 재보자들(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별벌드레리 (재)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밤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35 특집다큐 바다속의 황금, 다시마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클로벌24 55 마녀의 법정 (재)	35 하하랜드 스페셜 55 별벌드레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애 한밤
9	00 KBS 뉴스 9 40 KBS 파노라마-히말라야 인			
10	30 KBS 뉴스라인	00 마녀의 법정	00 20세기 소년소녀	00 사랑의 온도
11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0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재)	1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0 불타는 청춘1~2부
12	40 국악한마당 (재)	50 영화가 좋다(재)	45 강가 : 인도의 영혼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新상국지 2부 지혜의 화신 제갈량〉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07:45 출동! 슈퍼왕스 08:00 엉뚱맨 유치원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트 09:15 소피 루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정수의 비밀(재) 〈新상국지 2부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삼겹살조림과 시금치 청포묵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3:40 성난 물고기(재)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5:00 우주탐험가 챗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오도트,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얼마 까투리 16:15 두다다콩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엉뚱맨 유치원1~2(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4 1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뉴스 19:55 극한직업 20:40 다큐오늘 〈꿈꾸는 아이들의 보트 학교〉 20:50 세계테마기행 〈살을 노래하라! 인도네시아 2부 축제의 바다〉 21:30 한국기행 〈가을엔 노래기행 2부 남과 함께〉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메디컬 다큐-7요일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적으로 인한 혼동의 피해가 상당할 수다. 60년생 예전에 접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이다. 72년생 확실해 분간해 두지 않는다면 당해 문제에 있어서 혼돈을 야기할 수도 있다. 84년생 지나칠 뻔한 것 속에 귀중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67, 15	午	42년생 실익은 있으나 기대했던 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54년생 강도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형세이다. 66년생 예의 주지 할 이가 생긴다. 78년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90년생 순리 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16, 04
丑	49년생 아무리 의욕이 충천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61년생 협의하에 선택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73년생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무방하다. 85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것 으 떠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5, 30	未	43년생 누락이나 중복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한다. 55년생 길 흉이 혼재하면서 변화를 보일 것이다. 67년생 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느니라. 79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 겠다. 91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자. 행운의 숫자 : 17, 94
寅	50년생 복합적 파생 효과가 크다. 62년생 뜻밖의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매달릴 수다. 74년생 누구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갖자. 86년생 이익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1, 25	申	44년생 중요한 일을 단행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 날이다. 56년생 생 방도를 찾지 못해서 몹시 당황하는 모양이다. 68년생 뜻밖 의 협조가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80년생 친분을 가장하여 사 익을 도모하려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8, 43
卯	51년생 성벽 같이 판국이 굳어지는 양태이다. 63년생 절실하 필 요한 때에 해결해 주는 이가 있으리라. 75년생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87년생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속 편하리라. 행운의 숫자 : 54, 62	酉	45년생 몇 발자국 물러나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형상이 보이리 라. 57년생 자신도 모르게 망각하고 있지 않나 살펴볼 일이다. 69년생 더 좋은 조건으로 변경되는 판세로다. 81년생 다채로운 변화의 시도와 응응이 아름답다. 행운의 숫자 : 07, 67
辰	52년생 낡은 것은 버리되 새 것에 대한 노력을 배가함이 적절하 다. 64년생 급작스러운 단절이나 변화가 보인다. 76년생 범위를 벗어나면 서로가 곤란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 88년생 높아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1, 60	戌	46년생 외환만 근사할 뿐이지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 58년생 좋은 일이 있는 과정에서 마도 많이 끼는 법이다. 70년생 변수는 아예 없이 확정적이다. 82년생 무난한 상 태에서 대체적인 성과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5, 40
巳	53년생 제면치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느니라. 65년생 누가 필 해도 자신의 소신이 있어야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느니라. 77년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보인다. 89년생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0, 66	亥	47년생 크게 잃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하여야만 한다. 59 년생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71년생 발전 으로 이끄는 새로운 기운이 보인다. 83년생 취할 수 없다면 아깝 디라도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55, 9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